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33 주차 (롬 12:9~12:21)
(2016년 4월 15일 - 2018년 4월 21일)
(제5권 33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33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4 월 15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다 (주일)

오늘의 본문 (롬 12:9~13)

- ⁹ Ἡ ἀγάπη ἀνυπόκριτος,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다)
ἀποστυγοῦντες τὸ πονηρόν, (악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κολλώμενοι τῷ ἀγαθῷ, (선에게 속하며)
- ¹⁰ τῇ φιλαδελφίᾳ εἰς ἀλλήλους φιλόστοργοι, (형제 사랑으로 서로 헌신하고)
τῇ τιμῇ ἀλλήλους προηγούμενοι, (존중함으로 서로를 앞세우고)
- ¹¹ τῇ σπουδῇ μὴ ὀκνηροί,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게)
τῷ πνεύματι ζέοντες, (성령으로 열정적이면서)
τῷ κυρίῳ δουλεύοντες, (주님으로 섬기면서)
- ¹² τῇ ἐλπίδι χαίροντες, (소망으로 즐거워하면서)
τῇ θλίψει ὑπομένοντες, (환란 가운데 인내함으로)
τῇ προσευχῇ προσκαρτεροῦντες, (기도에 끊이지 않음으로)
- ¹³ ταῖς χρείαις τῶν ἀγίων κοινοῦντες, (성도의 필요함에 나눔으로)
τὴν φιλοξενίαν διώκοντες, (환대를 애쓰면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랑은 말로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마련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나? 참으로 고약한 질문이다. 바울은 성도들한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은 하지도 않거니와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대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 자력 구원을 하려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한 사람들이거나 둘 중 하나다.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

복음은 어렵지 않다. 누구나 이해할 정도로 단순하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처럼 그리 단순하지 않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다고 배운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로 실제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구원이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 하나님 노릇하던 인간들을 본래의 위치로 회복시킨 것, 그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다. 따라서 우리 마음 내키는대로 살아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은 아직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행위 중심의 구원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행위 중심의 구원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믿고 또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행위는 죄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인간의 행위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라는 질문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구원의 여부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

람이 있는가 하면 세리처럼 살아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또 다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는 거군요?” 도대체 막 사는 건 무엇일까?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으로 사는 게 막 사는 삶일까? 아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막 사는 삶이다. 하나님 눈에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살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다. 반면에 세리는 이미 구원받기는 틀린 죄인이라 여기면서 살아갔다. 사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요 죄인이다. 그런데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멀찍이서 가슴만 찢을 뿐인데 그런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을 직접 들었다라면 그는 성전 문밖을 나서면서 ‘휴, 이제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되겠군. 지금부터는 자유다!’ 단언컨대 절대로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다.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기에 이제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 그 권한을 기꺼이 포기할 용의가 있다. 술 마시는 문제를 예로 든다면 진정한 성도는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술 마시는 것이 진정으로 나와 가족 나아가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술 마실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다면 기꺼이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9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전 8:9-13).

사도 바울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느냐 아니냐 라는 논쟁은 앞에서 이미 종지부를 찍었다. 그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 다른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자유가 있었다.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런 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단 한 명의 형제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랑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희생이다.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다. 위선적이라는 말과 사랑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모든 위선적인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사랑이 아니다. 일부러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노숙자를 돕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물론 노숙자는 그 사람에게 무한한 감사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자신을 진정으로 희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라고 권면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구원받은 사람들은 타인을 어떻게 대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구체적이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9~13)

- 9 Ἡ ἀγάπη ἀνυπόκριτος,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다)
ἀποστυγοῦντες τὸ πονηρόν, (악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κολλώμενοι τῷ ἀγαθῷ, (선에게 속하며)
- 10 τῇ φιλαδελφίᾳ εἰς ἀλλήλους φιλόστοργοι, (형제 사랑으로 서로 헌신하고)
τῇ τιμῇ ἀλλήλους προηγούμενοι, (존중함으로 서로를 앞세우고)
- 11 τῇ σπουδῇ μὴ ὀκνηροί,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게)
τῷ πνεύματι ζέοντες, (성령으로 열정적이면서)
τῷ κυρίῳ δουλεύοντες, (주님으로 섬기면서)
- 12 τῇ ἐλπίδι χαίροντες, (소망으로 즐거워하면서)
τῇ θλίψει ὑπομένοντες, (환란가운데 인내함으로)
τῇ προσευχῇ προσκαρτεροῦντες, (기도에 끊이지 않음으로)
- 13 ταῖς χρείαις τῶν ἀγίων κοινοῦντες, (성도의 필요함에 나눔으로)
τὴν φιλοξενίαν διώκοντες, (환대를 애쓰면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며 실질적이다. 사랑은 이웃을 향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희생이다. 자기 희생이 없는 모든 행위는 사랑이 아니다. 바울은 사랑을 위해서 악을 거부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알다시피 모든 선악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걸까? 이에 대해서는 8 장 초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선과 악의 판단도 성령님께 맡긴 상태며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신다. 로마서 12 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마땅히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러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법이나 도덕보다는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법적, 도덕적인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는 옷도 빼앗기고 매까지 맞아 거의 시체가 된 채 버려졌다. 한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했다. 응당 도와주어야 했지만 성전 제사를 드리러 가는 도중이었기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었다. 아마도 제사장은 자신이 지켜야 할 법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법을 지키는 편을 택했다. 레위인도 그랬다. 결국 그들은 법은 지켰지만 사랑은 베풀지 못한 셈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강도 만났던 사람들과 같다. 옷이 벗겨지고 거반 죽게 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 내셨다. 법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율법 안에 머무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동이다. 이를 떼면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물이 깊으니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입수금지 팻말을 보고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과 같다. 법보다 생명이 우선이듯 법보다 사랑이 먼저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일부러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것이다. 우리에게 진실된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모든 비난을 감수하신 것이다.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사도 바울은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 실제적인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개역한글 성경으로 로마서 12 장 10 절-13 절을 읽어보자.

“⁴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⁴¹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⁴²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⁴³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롬 12:10-13).

바울은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헌신, 서로를 존중함, 부지런함, 열심, 즐거움, 참음, 끊이지 않는 기도, 필요한 것을 나눔, 환대 등을 제시한다. 이것이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이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서의 가르침과 그 정신이 동일하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⁴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⁴¹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⁴²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⁴³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⁴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⁴⁵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⁴⁶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⁴⁷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 5:40-47).

예수님은 지금 이미 구원 받아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이 점을 가르치고 있다. 사랑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다. 사실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인간은 본래의 죄된 성정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된다.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면 우쭐해지고 때론 실수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면 움츠러드는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그런 성정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공동체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놓고 우쭐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험을 했다면 그는 이미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힘든 법이다. 늘 자신의 교만과 위선적인 삶을 폭로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과 주님이다. 진정으로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봉사를 하면서도 자신이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쭐대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런 삶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항상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다. 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위선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사랑은 절대로 피상적이지 않다. 사랑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으로 사람의 행동을 선하다고 판단합니까? 왜 사랑이 최고의 선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14)

¹⁴ εὐλογεῖτε τοὺς διώκοντας [ύμᾱς],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εὐλογεῖτε καὶ μὴ καταρᾶσθε.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가 글과 그림, 사진으로 도배돼 있는 기념관에 ‘아버지’가 생생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래보다 큰 키에 부리부리한 눈매를 지닌 청년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를 따라 부흥회에 참석하고 있었고, 손 목사의 장례식에서는 상복을 입고 망상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있는 손양원 목사’라는 제목의 그림 앞에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떨어뜨렸다. 총에 맞아 쓰러진 장남과 차남, 그 기막힌 죽음 앞에서 손 목사는 총을 쏜 청년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성자로 존경받는 사람이라지만 어떻게 자식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당시 곁에서 손 목사님을 지켜보았던 생존자들은 말합니다. 재선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는 돌멩이를 삼키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다고 털어놓으시더라’고 하지만 재선이 앞에서는 언제나 의연하셨답니다. 네 실수를 나는 벌써 용서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다 위로하시면서...”(조선일보 2010년 8월 14일, 인터넷판에서 인용).

이 이야기는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었던 안재선의 아들인 안경선 목사가 손양원 목사의 묘소를 찾은 이야기를 기사화 한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로 입양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일 것이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완전한 용서, 마음의 응어리까지 모두 풀어내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다. 누군가의 전언이지만 손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다른 양아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돌멩이를 삼키는 것처럼 괴로웠다고 했다. 사실 인간이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겉으로는 다 용서한 것처럼 보이고, 그 앞에서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돌아서면 속에서부터 묵직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란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것은 어쩌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을 따르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다. 손양원 목사님도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에 까지 이르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돌멩이를 삼키는 것처럼 괴로웠다는 말은 훨씬 더 진정성이 있다. 원수를 위해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도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는 하기 힘들 것이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용서는 때론 이런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는다.

사랑할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을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교회에서 다정하게 서로 친교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포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축복까지 할 수 있을까? 과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걸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대답은 ‘그렇다’이다. 예수님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을 고문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올렸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른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이다. 맞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 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대 교회 첫 순교자로 알려진 스테반도 자신들 돌로 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기도를 올렸다. 사도행전 7장 59 절~60 절을 읽어보자.

“⁵⁹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⁶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 7:59-60).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스테반의 죄목이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유대인들 앞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한 것 때문에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다. 참으로 억울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퍼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스테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는 스테반이 이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했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아시아를 비롯한 각지에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주의 자들에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던 중 그곳을 방문한 아드립바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앞에서 변론의 기회를 잡아 복음을 선포한다. 그의 말을 들은 베스도와 아드립바 왕은 바울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바울과 그들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자. 사도행전 26 장 27 절~29 절이다.

바울:“... 아드립바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드립바:“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핍박하는 자를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옳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이 진리 안에 머물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사랑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즐거움도 슬픔도 함께하라(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15)

¹⁵ χαίρειν μετὰ χαιρόντων, κλαίειν μετὰ κλαιόντων.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막내 아들이 광화문에서 열리는 세월호 추도 예배에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난 함께 가지 못했다. 추도 예배 하나 가 놓고 나를 변명할까 봐 그것이 싫었다. 혹시 우리 막내 아들 녀석 내가 추도 예배 같이 안 갔다고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생각도 의식도 없는 아비라고 오해하지는 않았을까 조금은 걱정된다. 그건 아닌데...”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 세월호 일주기에 맞추어 한 기독교 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아침에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당시 세월호에는 476명의 승객이 탑승했는데 그 중에 안산 단원고 학생이 325명이었고 교사 14명까지 포함하면 수학 여행단은 339명인 셈이다. 당시 배가 침몰하는 상황은 텔레비전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며 그 광경을 지켜 보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던 없든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람들이 구출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 사고의 결과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날의 참담함과 상처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려는 기회로 삼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도 했다. 위에 인용한 목사님의 글은 바로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추도 예배에 참석하려니 그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고, 그렇다고 가지 않으려니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비겁하다고 말하고, 나서면 생색이나 낸다고 비난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도대체 목사님이 이토록 갈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타인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때문이 아닐까 싶다.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과 타인들의 시선 때문에 행동을 주저한 게 아닐까? 물론 세상 탓을 하면 뭐할까만은 자기 뜻대로 쉽사리 행동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의 권면은 매우 단호하다. 어떤 상황에서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은근히 시기심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즐거워하다가도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의 기쁨에는 마음껏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대표가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한다. 하지만 자기는 형편이 어려운데 친한 친구의 사업이 번창하거나, 또는 자기 자식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친구의 자녀는 명문대에 입학했다면 그 친구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 주기가 어려운 법이다. 슬픔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희생 학생들의 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단식을 이어갈 때 일부는 그들을 향해 유난스럽다고 비판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게 세상 인심이다.

하지만 바울이 한 권면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다. 사실 진정으로 즐거움에 동참하면 그 기쁨이 두 배가 되고 슬픔에 동참하면 그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로 설명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라는 말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성도는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용서를 받았기에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물론 어떤 때는 용서와 사랑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대길 수도 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있기에 우리는 곧 그 사실을 직시하고 그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비판이 두려워 사랑을 행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린 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구체적일뿐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¹³ 공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홀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¹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¹⁵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¹⁶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¹⁷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 2:12-17).

믿음은 관념이 아니다. 실제 삶에서 행위로 드러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방증이다. 믿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두 가지 일을 스스로 하게 되어 있다. 하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현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믿음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사랑의 행위를 자신의 의로 여기기 않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한다. 물론 현재 이런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왜 내가 타인을 돕는데 인색한지, 왜 나의 유익만 구하고 타인의 슬픔을 돌아보지 못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다 보면 이기적인 욕망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런 욕망을 서서히 내려 놓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어차피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이다. 내 입장이 돼 봐라”는 등 계속해서 핑곗거리만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에 진실로 함께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게 되었나요?

스스로 지혜있는 체하지 말라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16~17)

- ¹⁶ τὸ αὐτὸ εἰς ἀλλήλους φρονοῦντες, (서로를 향해 자신과 같이 여기면서)
μη τὰ ὑψηλὰ φρονοῦντες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ἀλλὰ τοῖς ταπεινοῖς συναπαγόμενοι.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μη γίνεσθε φρόνιμοι παρ' ἑαυτοῖς. (스스로 지혜있는 체하지 말라)
- ¹⁷ μηδενὶ κακὸν ἀντὶ κακοῦ ἀποδιδόντες,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
προνοοῦμενοι κατὰ ἐνώπιον πάντων ἀνθρώπων.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도모함으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모든 인간들은 예외없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불치병이 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이다. 물론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그 중에는 아마도 분하고 억울해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니가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 예외없이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려고 한다. 당신은 그렇지 않은가?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추구하려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얼핏 들으면 일리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을 추구하는 경향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소위 ‘하나님 놀이’라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잘 생각해 보라. 인간들이 서로 싸우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제각기 다른 선악 판단 때문이다.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심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놀이다.

바울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한 선에 이르려는 모든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받아들인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놀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육체를 벗어나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그 날까지 ‘하나님 놀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담의 후예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하는 불치병이다.

바울은 여전히 선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스스로 지혜있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은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주장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도 그랬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인정하지 않고 각기 자신들만 옳다고 내세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인데도 여느 때와 똑같이 살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저러고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판단했다. 어떻게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율법에만 집착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궁극적인 안식의 의미도 모른 채 안식일 준수에만 급급해 하는지 의아해하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한 권면은 ‘타인을 자신과 같이 여기라’이다. 역지사지의 태도로 타인의 입장에서 보라는 것이다. 안식일이 있는 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왔던 안식일 규례를 따라야 하는 게 옳으냐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타인의 입장에서 서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며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입장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다. 타인의 행위나 삶의 습관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있는 체하는 것의 전형적인 예다.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했다.

“¹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훈이나 자비가 있거든 ²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³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 2:1-4).

타인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긴다는 말은 자신이 남들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다. 잘 냈냐 못 냈냐는 기준 자체가 세상적이다.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낮다는 것은 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주인이 종보다 낮다는 것은 신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비교는 세상적 가치가 그 기준이다. 심지어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지 비교하는 것도 세상적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든 그것으로 생색을 내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 타인에 대해 자신이 비교 우위에 있음을 뽐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모두 내려 놓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때 가능해진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설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겸손은 자기 발견이지 자기 낮춤이 아니다. 원래 높은 사람이 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가 흠에서 시작된 보잘 것 없는 존재였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서로를 향해 자신과 같이 여기면서,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낮은 자들과 어울리마”라고 한 말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뜻이다. 모두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원된 사람들이다.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나라에서조차 서로 높낮이를 따지고 대접하는 자와 대접받는 자가 나뉘어진다면 어떻게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 하겠는가? 우리는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은 후손답게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서로를 비교한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겠는가?

“²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 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³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약 2:2-4).

다시 말하지만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성도를 차별없게 대할 뿐 아니라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정말 자신은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혜있는 체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18~19)

- ¹⁸ εἰ δυνατὸν τὸ ἐξ ὑμῶν, (너희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능하면)
μετὰ πάντων ἀνθρώπων εἰρηνεύοντες·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하면서)
- ¹⁹ μὴ ἐαυτοὺς ἐκδικοῦντες, ἀγαπητοί, (원수를 친히 갚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ἀλλὰ δότε τόπον τῇ ὀργῇ, (현장을 진노하심에 넘겨주라!)
γέγραπται γάρ· (기록되었으되)
ἐμοὶ ἐκδίκησις, ἐγὼ ἀνταποδώσω, (원수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λέγει κύριος, (주가 말씀하신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하고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현장을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권고한다. 바울의 명령은 오직 하나다. ‘현장을 진노하심으로 넘기라!’ 헬리어를 영어로 그대로 옮긴 킹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Give place unto wrath.”라고 번역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자리’ 또는 ‘장소’를 의미하는 토폰(τόπον)을 생략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자리’를 넘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며 이를 위해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바울은 비록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하고 원수를 친히 갚지 말며 그 현장을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권한다.

먼저 전제 조건을 살펴 보자. 바울은 ‘만약 당신들로부터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가능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말이다. 감내할 수 없는 것까지 하라고 무리하게 명령하고 있지 않다. 결국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애매한 고난들을 인내하고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에 달려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삶 속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고난은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바로잡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들이나 공산 국가에서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고통을 인내하며 화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살아가면서 자신이나 가족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과 화평을 유지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성도 개개인에게 달려 있다. 어떤 이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억지로 자신의 명령을 지켜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영어 성경 중 ESV 번역본은 이 부분을 아주 절묘하게 해석했다. “If possible, so far as it depends on you, live peaceably with all”(롬 12:18, ESV).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도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무엇이든 억지로 명령을 수행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과 화목하는 일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문제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지는 않는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일로 우리의 구원이 오락가락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몇 명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의 권고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

땅히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진정으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용서를 타인에게도 베푸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은 이런 당연한 것조차도 행하기 힘든 연약한 존재들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인간의 욕망,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지 않고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아무리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해도 여전히 분노는 살아 있고 원한은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는다. 이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타인과 화해하기란 너무도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바울과 동일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권면한다.

“²¹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²²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²³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줄 생각나거든 ²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²⁵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목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²⁶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마 5:21-26).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내용을 천국 백성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계신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율법을 설명하신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살인은 물론이고 서로에 대해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는 것이 천국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살면서 어떻게 한번도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한번도 욕이나 비난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게 과연 가능하거나 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목’ ‘사화’를 말씀하고 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매번 부당한 것을 꺾꺾 누르며 참을 수는 없다.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모든 가정에는 불화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서로 화해하라고 말씀하신다. 서로 화목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도들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서로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 정죄의 자리인 희생 제사 현장에 이르기 전에 먼저 서로 화목하라고 명령하신다.

희생 제사의 ‘자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자리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의 자리로 넘기라는 말은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말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넘겨준 우리의 대적자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실까? 사실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다. 그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는 이미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토록 미워써 분노하고 저주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다. 그리고 보면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분노를 유발한 분노 유발자였고, 누군가를 힘들게 한 장본인이다. 이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화해하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원수의 필요를 채우라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12:20~21)

²⁰ ἄλλ' ἐὼν πεινῶ ὁ ἐχθρὸς σου, (반대로 너희 원수가 굶주리거든)

ψώμιζε αὐτόν· (그를 먹이라)

ἐὼν διψῶ, (만약 그가 목말라거든)

πότιζε αὐτόν· (그를 마시게 하라)

τοῦτο γὰρ ποιῶν (그것을 행함으로)

ἄθραικας πυρὸς σωρεύσεις ἐπὶ τὴν κεφαλὴν αὐτοῦ. (너희들이 불타는 숯불을 그의 머리에 올려 놓게 될 것이다)

²¹ μὴ νικῶ ὑπὸ τοῦ κακοῦ (악에 의해 정복당하지 말라)

ἀλλὰ νίκα ἐν τῷ ἀγαθῷ τὸ κακόν. (오히려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원수와 화목하고 용서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이제는 그 원수를 돌봐 주라고까지 명령하신다. “만약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를 먹이라.” 성도들이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일반적인 명령일까 아니면 아주 극소수의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명령일까? 설사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과연 성도들이 이 명령을 수행할 수는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우선 이 질문에 대해 답부터 하자면 이 명령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것이고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물론 노파심에 이야기하지만 이 명령의 수행 여부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여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내기가 만만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욕망을 내려 놓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영광은 고스란히 명예롭게 산 자의 몫이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겸손의 마음으로 명예욕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명예욕 자체가 죄라는 걸 깨닫게 된다. 사람들에게 칭찬 받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에게나 다 있다. 하지만 그 일이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실 칭찬받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고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일이다.

앞서 든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그와 겸상을 하고 평생을 함께 보냈다. 아들을 죽인 자보다 더한 원수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자를 앞에 두고 밥이 제대로 넘어갈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그는 그 고통을 돌을 씹어 넘기는 것에 비유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 죄로 인해 자신에게서 멀어진 인간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배우게 된다는 것이

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으로 거두려고 애쓴 손목사님 덕에 안재선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안다.

이처럼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명령은 소위 ‘원수’와 그 ‘원수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각기 다른 유익을 가져다 준다. 첫째, 성경은 이렇게 함으로 성도들이 불타는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올려 놓게 될 것이라고 (20 절)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은 잠언 25 장 21 절-22 절에서 인용한 말씀이다. 불타는 숯불은 하나님의 임재, 특히 심판을 위한 임재를 의미했다. 하지만,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원수를 복음으로 이끄는 도구로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줌으로써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 수 있다. 바울은 그런 목적으로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다. 참고로 현대의 많은 주석가들은 불타는 숯불을 맹렬하게 불타는 수치심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Douglas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pp. 788-789 참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끌려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성도는 그 심판대 앞에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엎드린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선은 원수조차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있다.

바울은 성도들 누구에게도 받은 대로 보복하라고 명하지 않았다. 성도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대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그를 용서하고 나아가 그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번에는 명령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자. 사랑은 법보다 훨씬 더 적극적 행위다. 그리고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다. 동물들도 제 자식은 끔찍하게 아끼지 않는가? 게다가 친구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해롭게 하거나 자신과 가족을 다치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그 사랑을 성도들이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다. 물론 피나는 노력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건 잘못이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 한 구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미움이 있음을,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유익을 좇아 행하는 이기심이 가득함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된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악에게 정복 당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